

“저는 중화민족입니다”... 위구르 소녀, 신장의 현실을 말하다



뉴스 

문예성 기자



2024년 10월17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의 양방모스크의 대문이 닫혀져 있고, 모스크 앞에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다.



2024년 10월15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공항에서 베이징으로 '연학(研學)'을 떠나는 위구르 아이들. 연학은 신장자치구 출신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교사와 전직 군인 출신 교관의 인솔하에 수도 베이징 등 다른 도시를 방문해 체험 학습을 명분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014년 3월1일 토요일 자정 무렵, 어둠이 깊어진 당직실에 한 줄짜리 속보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중국 윈난성 쿤밍 기차역에서 무차별 칼부림 발생.” 문장은 짧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묵직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이후 현장 사진은 오지 않았다. 중국식 보도 통제였다. 대신 SNS에선 다급하고 불완전한 문장들이 흘러넘쳤다. 복면을 쓴 괴한들이 50~80cm 장도를 들고 군중을 찔렀다고 했다. 사상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사건은 ‘쿤밍역 테러’로 기록됐다. 공

식 사망자 31명, 부상자 141명. 위구르족으로 알려진 용의자 8명 가운데 4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는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이 사건을 신장 분리독립 세력이 저지른 테러로 단정했고, 이후 신장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4년 10월, 나는 신장을 직접 찾게 됐다. 외신 취재가 철저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락된 드문 기회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신장자치구 정부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미디어 서밋’에 한국 언론사로는 뉴시스가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뉴시스 소속 기자로서 동시

에 신장 지역을 오랫동안 응시해온 사람으로서 초대장을 받아들였다.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맞닿은 신장 자치구는 고대 실크로드의 요충지이자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풍부한 자원을 지닌 땅이다.

이곳의 주요 민족인 위구르족은 투르크계 수니파 무슬림이다. 신장은 티베트·내몽골과 함께 중국 내 ‘3대 민족 분쟁지’로 꼽힌다.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이 지역에서 인권 침해, 심지어 인종말살에 가까운 정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4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신장자치구 성도 우루무치. 거기서 다시 2시간 더 비행하면 중국 최서단 도시이자 위구르족의 정신적 고향이라 불리는 카스(카슈가르)에 도달할 수 있다.

통제와 유희, 두 얼굴의 ‘안정’

도시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다. 곳곳엔 잘 정비된 도로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사람들 표정에는 여유 같은 게 흘렀다.

그러나 감시의 기운은 짙었다. 신장에서는 호텔, 마트, 관광지 입구까지 거의 모든 출입구에 보안검색대가 설치돼 있다.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는 탐지견과 함



2024년 10월16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 구시가지의 한 특산물 가게 앞에서 주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국어로 ‘카스고성’이라고도 불리는 구시가지는 카스 내 3.6km²의 주거 지역이자 인기 있는 관광지다.

께 순찰을 돌았고, 장갑차처럼 보이는 경찰차가 거리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또 100m마다 경찰 초소가 있었고, 곳곳엔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우루무치 도심 양향모스크 마당에는 붉은색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었고, ‘사회주의 가치관’, ‘시진핑 사상’ 등이 적힌 팻말이 모스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56개 민족은 석류알처럼 단결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신장 시찰 중 남긴 이 문장은 지금도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 표면적으로 ‘화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순응을 강요하는 구호로 읽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장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며 치안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4년 10월17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다바자(바자)는 위구르어로 재래시장) 관광지 입구에 경찰차가 세워져 있다.



2024년 10월16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 구시가지의 한 노천 술집 앞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춤을 추고 있다.

안정의 이면엔 또 다른 전략이 있었다. 바로 ‘경제적 유화’. 통제와 발전은 함께 병행됐다.

카스 구시가지(고성)의 재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2018년 기준 카스 인구 71만 명 중 86%가 위구르족이다. “카스를 보지 않고 신장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구르 문화의 중심지다.

카스 구시가지는 2000년 넘게 위구르족이 거주하며 이슬람 문화를 지켜온 지역이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오래된 골목과 흙집이 가득했던 이 지역은 중국 중앙정부의 주도로 2008년부터 재건됐다. 2015년에는 자금성과 만리장성과 함께 ‘국가 5A급 관광지’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의 직접 수혜자가 됐다. 전통 가옥은 기념품 가게, 음식점, 민박 등으로 바뀌었고, 삶과 생계가 동시에 보장됐다.

초기에는 한족 상인의 유입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관광 수입 증대로 갈등을 일부 완화시켰다.

농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다른 신장 지

역보다 수자원이 풍부한 카스에서는 벼농사도 가능하지만, 알칼리성 토양 문제와 기술 부족으로 생산성은 낮았다. 정부는 농업기술 지원과 농지 위탁 경영 등 ‘신농촌 정책’을 통해 생계 안정과 소득 증가를 꾀했다.

카스 파하타이커리향(鄉)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주민 오스만 압둘라는 “수입이 두 배 늘었다”며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 대신 트럭을 몰았고, 그의 아내는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점을 열었다.

이 대목에서 고전 ‘사기(史記)’의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배가 부르면, 불만은 가라앉는다. 그런 통치의 논리는 오래전부터 유효했으며, 이곳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듯했다.

“저는 중화민족입니다”라는 대답의 의미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민족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

카스로 향하던 길, 우루무치 공항에서 나는 베이징 ‘연학(研學)’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무리와 마주쳤다. ‘연학’은 한국의 수학여행, 견학과는 다르다. 신장자



2024년 10월16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 구시가지의 한 민박에서 직원들이 전통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치구 소수민족 학생들을 주요 도시로 데려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학습하게 하는 ‘체험형 사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중 한 소녀 마이마이티는 내 옆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어느 민족이니?” 나의 물음에 소녀는 주저 없이 답했다. “저는 중화민족입니다.”

위구르족 소녀였다. 내가 “위구르족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투복 차림의 교관을 힐끗 살핀 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블랙핑크 팬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뉴진스 키링을 꺼내 소



2024년 10월16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 구시가지의 한 가게에서 한 장인이 철문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지고 있다.

녀에게 건넸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아이였지만, 그 순간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서방 언론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강제수용소에 구금하고 세뇌, 사상 주입 심지어 불임시술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중국은 직업훈련소라고 반박해 왔다.

수용소의 실체는 이번 취재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동화(同化) 교육’의 효과는 분명해 보였다.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민족 화합’. 당국이 내세우는 세 가지 구호는 어느 정도 실현된 듯했다. 하지만 통제와 유희 사이의 균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신장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언젠든 저항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다.

2022년 11월24일 우루무치 텐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는 이를 다시 일깨웠다.

코로나19 방역 통제로 설치된 장애물 탓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이 아파트 주민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분노는 전국적 시위로 번졌다. 당시 시위대는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아무런 구호를 적지 않은 종이를 들고 시위에 나서면서 ‘백지시위’, ‘백지혁명’으로 불렸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12월7일 중국 중앙정부는 방역을 완화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그 분노는 단지 불 때문만은 아니었다.

신장을 떠나며 나는 자문했다. 과연 이곳의 진실을 제대로 본 것일까?

“저는 중화민족입니다.” 위구르 소녀 마이마이티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민족의 뿌리는 잘린 채 중화민족이라는 화분에 옮겨 심어진 아이들이 과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

뉴시스 문예성 기자